



주 제:	“사랑의 소명”	“사순 제 2 주일”	2009 년 3 월 8 일
복음 묵상:	[마르 9,2-10]	[창세 22,1-2.9 7.10-13.15-18]	[로마 8,31 나-34]

예수님께서서는 특별히 가려낸 제자들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눈부시게 모습이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높은 산은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며, 새하얗게 빛나는 모습은 하느님의 영광을 뜻합니다. 인간이신 모습에 가리어져 있던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이 감격하였고 또 두려웠습니다. 두려우면서도 그대로 머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니 그 말을 들으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그들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하느님이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당신 목숨을 내어 놓을 때 완성이 됩니다. 하느님은 외아드님을 내어주시고, 외아드님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깨달음으로써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만 그에 맞게, 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주장합니다. 인간이란 천박하고 이기적인 존재여서,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생동안 끝없는 경쟁 속에서 각박하게 허덕여야하고, 경쟁에서 밀려나면 아무 쓸모없는 낙오자가 될 뿐이라고. 그러나 복음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이미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나눔으로써 영원한 삶을 얻도록 초대받은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는 증오와 다툼에 자기 일생을 소비하고, 어떤 이는 그 삶을 값지게 나눌 줄 압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돌아가신 추기경님이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행복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합시다.
(의정부 변승식 신부님 강론중에서)

+ 복음 [마르 1,12-15]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천장이라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오늘의 말씀 사랑: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1 코린 1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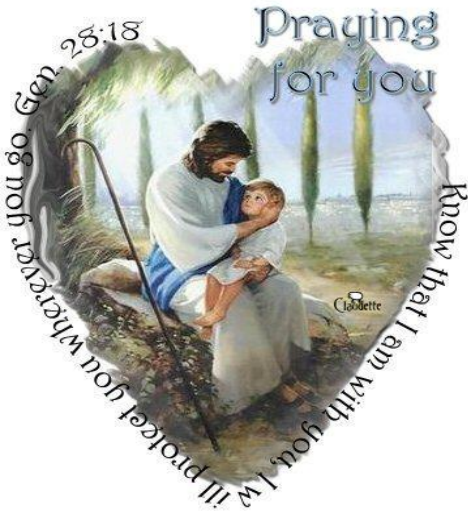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강하고 깊이 품고 있는 소망은 곧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잊혀지고,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사기당하고, 멸시받고, 차별대우를 받고, 버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진정,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로 한 발자국 다가가 그들과 더불어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사랑의 결실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기도

아버지의 사랑이신 예수님,
 저희가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저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당신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성령봉사회 주 활동

1. 참 하느님을 알게 해 준다.

우리와 가장 친밀하며 가까이 계시는 성령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다. 성령봉사회에서는 삼위일체 교리를 체계화하여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데 대해 성서와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올바르게 알려 준다.

2. 살아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 준다.

그리스도교 핵심은 부활신앙이며, 이는 곧 체험신앙이다.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인도를 느끼며 매순간 하느님을 만난다면, 신앙생활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의 연속일 것이다. 성령봉사회는 이처럼 하느님과 더불어 살도록 돕는다.

3. 선교 사업을 수행한다.

밀지 않는 사람도 선교의 중요한 대상이지만, 세례를 받았으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 곧 냉담해지고 마는 신자들을 복음화시켜, 선교를 완성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고 치유해 줌으로써, 신자들이 정체성을 확고히 하도록 일깨워 준다.

4. 교회의 본 모습을 되찾는 운동이다.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성령강림 사건이다. 교회를 움직이시고, 이끄시는 주인은 누구이신가? 바로 성령이시다. 따라서 교회의 구성원이요 하느님의 백성인 평신도들이 성령께 마음을 활짝 열어야만 교회는 참 모습을 갖출 수 있다. 성령운동은 평신도들의 능동적인 복음선포를 통해 우리 교회가 초대 교회처럼 힘있는 공동체를 구현하도록 하는 데 앞장선다

5. 성사생활을 충실히 하도록 도와 준다

우리 가톨릭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성사생활은 물론 말씀생활, 기도생활에 맞들이도록 도와 준다. 성사생활을 충실히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되고, 교계제도 안에서 아름답게 봉사하는 법도 배우게 된다.

6. 늘 새롭고, 적극적이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준다.

성령은 변화의 영이시다. 따라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늘 새롭고, 역동적이며,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봉사회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이들을 완덕의 길로 초대 하고 이끄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이들이 완덕의 길을 잘 걷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지도한다.